



진월 전어잡이 소리 보존회 회원들이 지난해 전어축제 때 '진월 전어잡이소리' 시연을 하고 있다. '진월 전어잡이소리'는 광양만 어민들이 불렀던 어로(漁撈) 민요로, 전남도 무형문화재(제57호)로 지정됐다. <광양시 제공>

별미의 계절...9월 찾아 떠나는 광양여행

가을빛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말만 그렇까. 풍성한 수확의 시기, 별 반찬이 따로 없어도 식욕이 불타오른다. 광양시가 입맛 당기는 먹거리를 내세운 행사를 기획, 여행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주말, 자녀 손 잡아끌고 움직여라. 입맛을 부추기는 먹거리가 많다. 짙고 그윽한 가을 향기는 덩이다.



●참깨가 서말, 전어 맛볼까

망덕포구 15~17일 전어축제

'가을 전어'는 여름철 충분한 먹이를 먹고 성장, 가을에 가장 맛이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가을의 진미 전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제 18회 광양전어축제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월면 망덕포구에서 '달빛나루! 망덕포구에서! 가을전어의 향연을 만끽하세요!'를 주제로 열린다. 예로부터 망덕포구에서 잡히는 전어는 살은 통통하고 비린내는 적으며 뼈가 무르고 고소해 돈이 아깝지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57호인 '진월 전어잡이 소리' 시연 장면도 볼 수 있다.

●못 잊는다는 불고기

21일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



'천하일미 마로화적'(天下一味 馬老火炙), 마로는 광양의 옛 이름으로, 광양으로 유배 온 선비들이 귀양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으로 복귀한 뒤에도 이곳에서 먹던 불고기 맛을 못 잊어 이렇게 읊조린 데서 연유했다고 한다.

청동화로에 참숯을 피우고 은은한 향이 육질에 스며들도록 구리 석쇠에 구워 낸 게 광양불고기다. 집마다 다른 양념을 버무린 광양 불고기를 체험할 수 있는 '제 16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빛과 꽃, 맛의 어울림. 숯불구이 사랑' 라는 주제로 서전에서 열린다.



●참숯으로 구운 닭·장어

백운산 참숯으로 구워 살살 녹아

닭숯불구이·장어숯불구이도 별미다. 백운산 참숯의 향이 스며들게 석쇠 위에 얹혀 펼쳐 구워먹는 게 맛의

비결로, 광양만의 특색있는 요리로 맵지도 않아 아이들 입맛에도 맞다.

섬진강과 남해가 합류되는 광양만에서 잡힌다는 '아나고'로 불리는 봉장어를 숯불에 구운 장어숯불구이도 지나치기엔 섬섬하다.



●섬진강 재첩도 제철

안 먹고 지나치기엔 너무 섬섬

1970~1980년대 광양에서 이른 새벽, 양철통을 머리에 이고 돌아다니며 "재첩국 사이다~"를 외치던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광양 섬진강재첩도 이 시기가 제철로, 살이 찢다고 안 먹고 지나치기엔 섬섬할 정도로 별미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전어와 광양불고기를 비롯해 섬진강재첩, 닭구이, 장어구이 등 가을 입맛을 돋우는 별미를 즐기고 광양 코스모스 꽃길을 산책하면서 가을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숯불구이, 백운산고로쇠, 섬진강재첩, 망덕포구 전어, 기정떡, 매실차, 닭숯불구이, 꽃감, 숯불장어구이 등을 반드시 맛보아야 할 광양 '9미(味)'로 꼽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의회 전경.

부실대학에 혈세 투입이라니...

하위 평가 광양보건대·한려대

광양시의회 지원조례 제정 논란

광양시의회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광양보건대와 한려대를 대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학 소유주와 비호 세력의 잘못으로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자구책도 없는 대학에 지역민 세금을 투입하는 데 따른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제출된 광양보건대의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지역대학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양보건대는 지난 7월 시의회에 ▲정부·전남도·광양시로부터 받은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지역과 함께가는 선도대학 인정 ▲대학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 ▲특별 지원조례 제정 등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 지원 조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제정 사유로 들었다. 다만, 광양보건대가 아닌, 광양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재정 지원은 교육부 조치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양지역 대학은 광양보건대와 한려대로, 이들 대학 모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 I·II 유형과 학자금 대출도 전혀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개선 과제 시행 여부를 점검, 2차년도 추가 평가 결과를 최근 내놓은 바 있다. 학생과 교직원 잘못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역민들이 납득할만한 학교 스스로의 개선 조치나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드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앞서, 광양시가 정부 국정운영과제에 반영할 지역정책으로 '광양보건대의 공영형 사립대 육성'을 포함한 점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적절성 여부를 놓고 뒷맛이 무성하다.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조례 제정 이후에도 교육부 조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광양시 내년 국비보조금 2148억 확보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등

지역 주요 사업 추진 탄력

광양시가 내년도 예산 2148억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확보했다.

광양시는 특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10건)을 추진하는데 들어갈 예산 101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 옥곡천 생태하천(2단계) 복원사업비(25억원)와 다목적 복합체육관건립비(23억),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18억)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양시는 또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4억1000만원)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4억원)에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지역 환경 개선도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보조금 증가율이 15.1%에 달해 지역 주요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정부 예산 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현안사업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

H 010-9229-3530
062-5 3 1-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4호

첨단 우리병원에서는 척추 중점 치료합니다

- ✓ 척추관 협착증
- ✓ 허리 디스크
- ✓ 목 디스크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수술!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